

영웅시에 내재된 칼(무기)의 의의*

이 동 일

한국의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글

영웅들의 무용을 다루는 영웅시에서 칼과 무기의 기능 및 역할은 무용담의 주체인 영웅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중요한 의의는 칼 혹은 무기가 표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되는데서 발견될 수 있다. 영웅들의 활약 무대인 전투현장에서 칼은 일차적으로 영웅들의 영웅적 업적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서 그 직접적인 기능 혹은 역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칼(무기)은 영웅주의(heroism)라는 독특한 행동철학에 준하여 그 의의를 지니는데, 여기에는 정교한 어휘 조합을 통하여 자신이 의도한 바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무기를 장치로 하는 시인의 예술적 기교와 의도는 영웅주의 에토스와 결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정교한 어휘 조합을 통한 시인의 문학적 장치로서의 칼(무기)의 기능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용사의 무릎에 칼을 놓다”(laying a sword on one's lap)라는 상징적인 의식 속에 내포된 코미타투스의

*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구성원인 용사의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베오울프』 시의 핀(Finn)과 프레와루(Freawaru)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영웅주의의 특정한 행동철학인 복수에 대한 책무와 칼의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인용되는 핵심 어휘나 구문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전통적 고대영시 연구 방법인 문헌학(philology)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설과 추론의 여지를 배제하고자 한다.

II. 본론

II.i. 정교한 어휘 조합을 통한 시인의 의도

영웅주의 사회에 내재된 칼을 비롯한 무기의 상징성을 깊이 인식한 『베오울프』 시인은 시의 초반부에서부터 다양한 어휘 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무기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각별한 노력을 드러낸다.

들어보라! 우리들은 **창술에 능했던** 덴마크인들, 덴마크 왕들의 위대한 영예와 그들 군주들이 옛 적에 이룩한 용맹스러운 업적들을 들어 왔노라. **쉴드** 웨빙은 주변에 대치해 있는 많은 종족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연석을 빼앗았고)¹

HWÆT we Gar-Dena in geardagum
 þeod-cyninga þrym gefrunon,
 hu ða æþelingas ellen fremedon.
 Oft Scyld Scefing sceaþena þreatum, (1-4; 강조는 필자)²

『베오울프』 시의 시작은 고대 덴마크 왕국을 세운 전설적인 왕 쉴드 웨빙의 치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작 부분에서부터 시인은 고대영시에 자주 사용되는 상투적 표현인 ‘들어라’(whæt “lo, indeed, listen”)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은 다름 아닌 고대 덴마크 왕들과 덴마크인들

¹ 인용된 우리말 번역은 연구자가 시도한 것임.

² 인용된 고대영어 원문은 클레이버(Klaeber) 판에서 발췌한 것임.

의 영웅적인 업적을 언급된다. 이 과정에서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주체자들인 덴마크 용사들을 지칭하는 형용어구(epithet)는 *Gar-Dena* (*Spear-Danes*)로써 이는 ‘창’과 ‘덴마크인’의 합성어로서 의역을 가하면 ‘창을 잘 다루는 덴마크인’, ‘창술에 능한 덴마크인’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영웅주의 시대의 창은 무기의 대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Gar-Dena*의 의미는 ‘무기를 잘 다루는 덴마크인들’ 혹은 ‘싸움에 능한 덴마크인들’의 의미로 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첫 부분에서 맨 처음 언급되는 종족의 이름이 다음 아닌 무기와 연결된 복합명사의 형태로 소개되는 것은 우연한 어휘 조합과는 거리가 먼 어휘를 매체로 하는 시인의 의도된 예술적 장치로 간주된다. 『베오울프』 시에서 인용되는 덴마크인과 덴마크를 지칭하는 복합 명사는 매우 다양하다: ‘영예로운 덴마크인들’(Beorht-Dene “Glorious Danes, Bright Danes”), ‘하프 덴마크인들’(Healf-Dena “Half Danes”), ‘갑옷을 두른 덴마크인들’(Hring Dene “Ring-Armour Danes”), ‘북구 덴마크인들’(Norþ-Dene “North Danes”), ‘남구 덴마크인들’(Suð-Dena “South Danes”), ‘서구 덴마크인들’(West-Dene “West Danes”), ‘동구 덴마크인들’(East-Dena “East Danes”), 또한 이들은 그들을 통치했던 왕족의 이름을 따라 ‘설딩스’(Scyldingas) 혹은 ‘잉그위네’(Ingwine) 등으로 자주 불린다. 특히 덴마크인들이 동서남북과 연계된 복합명사로 구성된 것은 강대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덴마크인들의 강대한 국력을 상징하기 위해 도입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된다 (Farrell 235). 이와 같이 덴마크인들을 지칭하는 별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기와 연관된 복합명사의 형태로 덴마크인들이 등장되는 것은 시인의 의도된 문학적 장치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시작 부분에서부터 강조되는 무기의 중요성—무기를 요소로 하는 복합명사의 조합—은 덴마크 왕국의 설립자 **쉴드** 쉘빙(*Scyld* [shield] *Scefing*)과 그의 후손들인 **헤오르가르**(*Heorogar* [spear]), **호로드가르**(*Hrothgar* [spear])의 이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덴마크 왕족들의 이름을 형성하는 주요한 형태소인 고대영어 *scyld*와 *gar*는 ‘방패’(shield)와 ‘창’(spear)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무용(武勇)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주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된다.

시의 첫 단락(1-79행)은 고대 덴마크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송시의 특성을 지니며 덴마크 왕국의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는 호로드가르 왕의 등장을 다

루고 있다. 덴마크 왕국은 호로드가르(Hrothgar[spear])왕 때에 최대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의 업적은 지상에서 건줄 수 없는 가장 크고 화려한 헤오로트(Heorot) 궁의 완성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된다. 시의 첫 단락의 구성은 쉴드 웨빙에 의한 초기 덴마크 왕국의 설립과정과 호로드가르 왕의 전성기를 기리는 덴마크 왕족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 조합을 통한 외형적 구성은 덴마크 왕국의 위대한 업적의 수행자들인 ‘창술에 능했던 덴마크인들’(Gar-Dena)에서 시작하여 지상 최대의 궁궐을 완성한 Hrothgar 왕으로 마무리된다. 즉, 창(gar)으로 시작하여 창(gar)으로 끝나는 원형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된 무기의 형태소를 삽입하여 시 단락의 시작과 끝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시인의 의도된 어휘 조합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어휘 조합을 통한 시인의 의도는 덴마크 왕족들의 이름을 형성하는 형태소의 어원을 분석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쉴드 웨빙(Scyld Scefig)은 덴마크 왕국의 설립자(eponymous)로서 앞부분 형태소인 Scyld는 보스워스(Bosworth)와 톨러(Toller)의 고대영어 사전³에 의하면 ‘방패’(shield)의 의미를 지니며 두 번째 형태소인 Scefig은 ‘다발, 한 묶음의 건초 다발, 곡식 다발’(sheaf; BT)의 의미로 추정 된다. 두 번째 형태소에 포함된 ‘다발’의 의미는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의미하며 고대 민속 신앙의 중심테마(leitmotif)인 풍요와 번식(fertility)을 상징하기도 한다(Wrenn 52). 영웅주의 고대사회에서 뜻하는 풍요와 번식이 다름 아닌 전쟁을 통한 승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쉴드 웨빙의 이름을 구성하는 두 형태소인 ‘방패’와 ‘곡식다발’의 결합은 시의 시작부분에서부터 덴마크 왕족의 번영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에 일치되는 매우 적절한 어휘조합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덴마크왕국의 최대 번영을 주도한 호로드가르(Hrothgar)왕의 이름의 어원적 분석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첫 형태소인 Hroth-는 레흐만(Winfred P. Lehmann)의 고대 고딕어 사전에 의하면 아마도 고대영어 hrōr “vigorous(강한), strong(용맹한)” 혹은 hreð “glory(영예), triumph(승리)” 혹은 hroðor “joy(기쁨), pleasant(즐거움)”에 기원하여 의미는 다양하게 ‘용맹, 영예, 기쁨’ 등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Lehmann 192). Hroth-의 어원이 확실하지 않으나 어원으로 추정되

³ 보스워스와 톨러의 사전은 이하 BT로 명기한다.

는 *hlor*, *hreð*, *hroðor*는 공통적으로 극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종류 어원에 포함된 긍정적 의미가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결합된다면 '용맹스러운 행위로 승리를 쟁취하여 영예를 획득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와 같은 매우 타당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원상의 의미 차이는 존재하나 영웅주의 에토스를 적용하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의미론적 상관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흐로드가르(Hrothgar)라는 왕의 이름에 내재해 있는 어원에 입각한 의미인 앞부분의 형태소 *hroth*- "용맹, 영예, 기쁨"과 후반부 형태소 *gar* "창(spear)"과 결합했을 때 Hrothgar의 통합적 의미는 '창(무기)과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통하여 획득한 영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만약 시인이 이러한 의미를 의도하고 흐로드가르 왕의 이름을 조합했다면 이는 무기의 형태소를 삽입하여 무기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영웅적 업적을 찬양하려는 자신의 초반부 의도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시의 초반부에서부터 쉴드 웨빙과 흐로드가르의 이름에 포함된 무기의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심분 활용하여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덴마크 왕족들의 영예로운 업적과 영웅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기를 장치로 하는 시인의 예술적 기교와 의도는 영웅주의 에토스와 결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베오울프』 시에서는 창 보다는 칼의 사용을 통하여 무기의 중요성이 더욱 구체화 되고 있으며, 칼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매체로 사용되어진다.

II.ii. 용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의식의 도구로서의 칼의 기능

고대영웅시는 영웅주의라는 고대 게르만족의 행동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미타투스(*comitatus*)라는 사회 집단을 결속 시키는 독특한 도덕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군주와 신하간의 상호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웅주의 도덕률에 따르면 군주는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의 경제적, 법적 안정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용사들은 전시에 목숨을 바쳐 군주와 종족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이를 실천하게 된다. 이 경우 신하들을 위한 군주의 경제적 책무는 대부분의 경우 선물하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군주의 기능은 '보물-군

주'(hring-fengel "ring-prince"), '황금의 수여자'(gold-gyfa "gold-giver"), '보물 하사자'(sinc-gyfa "treasure-giver")와 같은 군주를 지칭하는 다양한 형용어구에서 입증된다. 군주의 보물하사와 이에 보답하는 신하들의 충성 맹세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신하들의 영웅적 행동은 곧 바로 코미타투스의 결속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신간의 이러한 상호 계약은 깨뜨릴 수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성스러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선물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과 보물들이 하사되지만 때론 창이나 갑옷과 같은 무기류와 말 등이 하사되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 용사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칼이 하사되기도 한다. 영웅적 행위나 전승의 결과로 이러한 고귀한 하사품이 전달되므로 주어진 하사품의 질과 양은 한 용사의 영웅적 가치를 규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하사품에 의한 용사의 가치는 『베오울프』 시에서 자주 인용되는 '무기로 영예로워진'(wæpnum geweorðad "made worthy by weapon, honored with weapon")의 표현에서 구체화되는데 이는 영웅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용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관용적인 표현(formulaic expression)이다.⁴

덴마크 해안에 도착한 베오울프와 그의 일행을 맞이한 덴마크의 해안경비대장은 베오울프의 비범한 외모에 감동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그의 용모나 출중한 외모가 그 자신의 정체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가 지닌 무기들을 보건데 그 무사다움이 돋보이는 것이 하찮은 가신을 아닌 것 같소.

nis þæt seldguma

wæpnum geweorðad næfne him his wlite leoge.

ænlic ansyn. (249-50; 강조는 필자)

외지인 베오울프를 처음 대면하는 덴마크 해안경비대장은 두 가지 요소—베오울프가 소유한 무기와 그의 출중한 외모—를 기준으로 베오울프를 판단하게 된다.

⁴ 앵글로 색슨 시대의 칼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나 의의 외에도 실제 생활 현장에서 귀중한 물건으로 유증되기도 한다. 고대 앵글로 색슨 시대의 유언을 남긴 기록(c. 1015)에 의하면 에텔레드(Aethelred)의 아들인 에텔링 아텔스탄(Aetheling Athelstan)은 8세기 때 머시아(Mercia)를 통치했던 오프(Offa)왕이 소유했던 보검을 동생인 에드먼드(Edmund)에게 유언으로 남긴다(Whitelock 171).

해안경비대장이 사용한 *wæpnum geweorðad* “made worthy by weapons, honored with weapon”은 영웅주의 가치관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영웅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인 용사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다른 아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룩한 영웅적 업적이 타인인 제 3자에 의해 인정되고 존중되어 영예와 명예를 획득하는 일이다(Smithers 178). 낫선 외지에서 온 용사 베오울프를 판단하는 임무는 덴마크를 외지인들의 침입으로부터 경계하고 지키는 해안경비대장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베오울프 일행의 신원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는 해안경비대장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외지의 침략자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 해안에 공개적으로 상륙하는 베오울프 일행을 침입자나 정탐꾼으로 판단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Pepperdene 413).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서 해안경비대장이 판단 기준으로 채택한 무기는 단순한 전투 장비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한 용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상징적 매체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해안경비대장은 베오울프가 지닌 무기 아마도 칼(Nægling)과 창이 보통의 무기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베오울프가 지닌 칼을 포함한 무기는, 마치 그의 외모가 보통 용사와 달리 비범한 용사의 기질을 발하는 것처럼 한 눈에 보아도 고귀한 보검임을 짐작케 하는 어떤 외형적 가치를 지녔을 것이다. 그러한 보검을 지닌다는 것은 그 용사의 영웅적 업적을 입증하는 것인데 아마도 베오울프는 덴마크에 오기 전 그러한 보검을 하사 받거나 전수 받을 만한 영웅적 업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오울프』 시에서 많은 보검과 보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 영웅적 업적의 대가로 전수되거나 하사 받는 경우이다. 무기(칼)에 내재되어 있는 고귀한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소지한 용사의 자질 혹은 정체성으로 연결시키는 해안경비대장의 판단력은 영웅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화된 습관으로 간주된다. 영웅의 가치 혹은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은 영웅시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규명의 과정에서 ‘명예’ (*hordweorþung* “hoard honour” [952]; *wigena weorðmynd* “the glory of warriors” [1559]), 혹은 명예의 형태소를 동반한 어휘 조합—무기로 명예로운’(*wæpnum geweorðad* “made worthy by weapons”), ‘전쟁으로 명예로운’(*wig geweorþad* “honoured by battle, war-honoured”)—은 거의 관용적인 수준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델을 물리친 베오울프의 전승을 기리는 향연장에서 호르드가르 왕은 ‘전

승의 명예, 전쟁으로 명예로운'(wig geweorþad "honoured by battle, war-honoured")이라는 표현과 함께 베오울프의 업적을 치하한다.

전승의 명예를 지닌 자여, 이제 자리에 돌아가 앉아 향연의 즐거움을 누리시오. 아침이 되면 우리는 많은 보물을 나눠 갖게 될 것이오.

Ga nu to setle, sýmbelwynne dreoh

wig geweorþad; unc sceal worm fela

mapma gemænra, siþðan morgen bið. (1782-84; 강조는 필자)

베오울프의 새로운 영웅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전승의 명예'라는 관용적 표현 중 '명예로워진, 명예롭게 되다'(geweorþad)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명예'(weorð) 혹은 '명예로워지다'(weorðian)는 영웅주의 사회의 용사들의 가치를 규정짓는 핵심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반영하는 어휘이다. 특히 전투가 일상화 되어있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용사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자신들이 모시는 군주로부터 '전투로 명예로워 졌다는' 찬사를 가장 갈망하게 된다.

II.iii. 상징적 의식의 도구로서의 칼의 의의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동원하여 이상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는 영웅주의 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로써 동시에 영웅시를 타 장르와 구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무기를 매체로, 특히 칼을 사용하여 용사의 가치를 규정한다. 『베오울프』 시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시인은 주요한 문학적 장치의 일환으로 칼을 자주 사용하여 용사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용사의 가치를 드높이는 과정에서 시인은 칼이 동원된 의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 시킨다. 영웅주의 사회에서 용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회적인 신분은 그의 업적을 인정한 군주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곧 바로 용사의 새로운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신분 상승 혹은 새로운 정체성은 많은 경우 "용사의 무릎에 칼을 놓다"(laying a sword on one's lap)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용사의 무릎에 칼을 놓다”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써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시각적인 의식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이는 영웅적 업적을 이룬 용사의 무용(武勇)을 확인시키는 의미를 지니거나 용사의 새로운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칼을 용사의 무릎에 놓다”의 또 다른 해석은, 이 경우 상징적인 해석의 범주에 속하는데, 용사의 기개(氣概)를 일깨워 전투에 임하라는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의식이나 영웅주의 사회의 불문율인 복수에 대한 책무를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덴마크에서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고국 예이츠 국으로 돌아 온 베오울프에게 군주 히엘락(Hygelac)은 칼을 포함한 보물을 하사함으로써 베오울프에게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부여한다.

그리고 영웅들의 수호자, 전투에 유명한 히엘락 왕은 부친 흐레텔의 금으로 장식된 가보를 가지고 오라고 명했노라. 그 당시 예이츠인들에 있어서 **칼의 가치로 봤을 때** 이 보다 더 고귀한 보물은 없었노라. 그는 그 검을 베오울프의 무릎에 놓았으며 또한 그에게 칠천 하이드의 토지와 흙, 그리고 귀한 직분도 하사했노라.

Het ða eorla hleo in gefetian,
 heaðorof cyning, Hreðles lafe,
 golde gegyrede; næs mid Geatum ða
 sincmaðþum selra on *sweordes had*
 þæt he Biowulfes bearm alegde,
 ond him gesealde seofan þusendo,
 bold ond bregostol. (2190-96; 강조는 필자)

베오울프가 하사 받은 검은 시인에 의해 ‘더 고귀한 보물(검)은 없었었노라’로 표현되는데 이는 이 보검이 예이츠 족이 보유한 최고의 보물 중 하나이며 동시에 베오울프가 이룩한 업적이 이 최고의 보검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오울프가 받은 칼의 가치를 규명하는 *sweordes had*의 의미론적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비록 클레이버(Frederic Klaeber)와 웬(C. L. Wrenn) 교수는 고대영어 *had*의 해석에 있어 BT에서 설정한 “정도(degree), 질서

(order), 등급(rank), 상태(condition)”의 뜻에 동의하지만 *sweordes had*가 지닌 총체적 의미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렇다 할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laeber 187; Wrenn 125). BT는 *sweordes had*의 해석에 있어 *had*가 지닌 독립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의미로 “among swords(칼 중에서)”의 뜻을 취하고 있다. 반면 클라크 홀(Clark Hall)의 경우 “칼의 형태에 있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직역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87). 필자는 이러한 해석이 의미의 핵심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베오울프의 뛰어난 업적과 이에 준하는 최고의 보검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의미론적 해석의 난제는 *had*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해석의 한계는 *had*를 해석할 때 상징적 혹은 비유적인 해석 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지닌 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하는 데서 발생하며 이 경우 해석의 범주가 좁아지면서 바라는 의미의 핵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had*는 고대영어의 경우 명사의 끝 부분에 위치하면서 접미사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남자다움, 어른임’(*manhad* “manhood”), ‘사내다움’(*werhad* “manhood”), ‘유년시절, 어릴 적, 어린시기’(*cildhad* “childhood”), ‘주교직, 주교의 권한, 권위’(*bisceophad* “bishop’s rank, position, right, authority”).

현대영어의 hood는 고대영어의 *had*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상기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신체적 상태는 물론 지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포함한 추상적 개념도 포함하게 된다. 추상적인 의미의 적용은 『베오울프』의 535행에서 그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cnihhtwesende*의 두 번째 형태소인 ‘상태, 시절’(“-*wesende* “being”)은 논란이 되고 있는 *had*에 상응하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태를 가름하는 접미어 형태소이다. 이러한 이중적 해석은 베오울프가 자신과 브레카(Breca)가 어린 시절 감행했던 수영시합을 상기 시키는 장면에서 더욱 확실해 진다.

우리 둘은, 어린 시절(상태)에 있었지만 시합에 임하기로 동의했고, 그 당시 우리들은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기로 당당히 말했으며, 우리는 말한 대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노라.

Wit þæt gecwædon *cnihhtwesende*
 ond gebeotedon wæron begen þa git
 on geogoðfeore þæt wit on garsecg ut
 aldrum neðdon, ond þæt geæfndon swa. (535-38; 강조는 필자)

문맥상의 엄격한 의미론적 분석을 적용해도 수영시합을 회고하는 베오울프의 어조에서는 그 어떤 후회의 빛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베오울프는 자신들이 ‘어린 시절’(*cnihhtwesende*)에 행한 수영시합을 자랑스럽게 회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오울프가 의도하는 함의는 “비록 우리가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한 험악한 모험을 감행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강건했노라”의 뜻으로써 자신과 브레카의 어린 시절 모험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감안할 때 *cnihhtwesende* “boyhood”에는 장성한 청년이 담당할 수 있는 소년의 육체적 상태를 암시할 뿐 아니라, 장성한 청장년의 기개(氣概) 혹은 정신적 자세 즉, 험난한 바다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굳센 정신적 자세가 완비된 상태를 암시하는 의도가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접미어 *-wesende*에는 소년의 육체적 상태는 물론이려니와 청장년이 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어린 소년들의 가상한 정신자세—영웅시에서 통용되는 영웅의 기개—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esende* “hood”가 품고 있는 ‘가치 있는’의 추상적 의미는 또 다른 고대영어 *manhad*에서도 발견된다. 고대영어 *manhad*는 현대영어 *manhood*와 의미가 일치하며 ‘남자다운 기개, 남자다움’(manly spirit)의 의미를 지니며 단순한 남자의 성숙한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성한 남자에 상응하는 정신적 지적 성숙함(가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남자다운(가치 있는) 행위를 할 만한 정신적 지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영어 *-had*에 내포된 ‘가치’의 추상적 의미를 *sweordes had*에 적용한다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칼의 종류 혹은 형태’를 뛰어넘는 ‘칼의 가치에 있어서’(in the worthiness of a sword)라는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부분의 “그 당시에 예이츠국에 더 귀한 보물은 없었노라”(næs mid Geatum ða sinmaðpum selra)와 의미상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길 데 없는 ‘칼의 가치’에 있어서라는 해석은 그 칼의 실제적인 가치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오울프가 받은 칼은 히엘

락의 부친인 선왕 ‘흐레델의 유물’(Hreðles lafe “Hrethel’s legacy”)로서 이는 예이츠 왕족의 2대에 걸친 ‘최고로 고귀한 보물’(the greatest treasure)로써 그 실제적 가치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Sweordes had*에 ‘칼의 가치’(in the worthiness of a sword)를 적용했을 때 해당 부분의 전체적 해석은 “당시의 예이츠 족에 있어서 칼의 가치로 봤을 때 이보다 더 고귀한 보물은 없었노라”로써 이는 베오울프의 전설적인 업적과 그 어떤 검과도 견줄 수 없는 칼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해석으로 간주된다.

칼을 매체로 하는 선물하사의 예는 베오울프가 자신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준 해안경비대장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칼을 하사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베오울프는 금장식으로 둘러진 검을 그들의 배를 감시한 해안경비대장에게 주었노라. 그리하여 그 경비대장은 이후 향연장에서 가보인 그 보물로 인하여 더욱 영예롭게 될 것이었노라.

He Pæm batwearde bunden golde
swurd gesealde, Pæt he syðan wæs
on meodubence maPme Py weorPra. (1900-03)

해안경비대장의 새로운 용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어휘들인 ‘주연석’(meodubence “mead-bench”), ‘영예롭게 되다, 존중되다’(weorð “valued, honored, worth”)들은 진정한 영웅으로 부상하기 전의 무기력했던 젊은 베오울프를 묘사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천대받았노라. 예이츠인의 아들들은 그를 가치 있는 (영예로운)용사로 간주하지 않았고 예이츠의 군주도 주연석(酒宴席)에서 그를 높이지 않았노라.

Hean wæs lange,
swa hyne Geata bearn godne ne tealdon,
ne hyne on medobence micles wyrðne
drihten Wedera gedon wolde. (2183-86; 강조는 필자)

베오울프의 무기력한 상태와 해안경비대장의 새로운 용사적 가치를 규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더욱 명예로운’(weorðra “worthier”) 그리고 ‘명예’(wyrðne, “honour”), weorðra와 wyrðne와 같은 어휘는 고대영어 weorðan “happen, become, come to pass”에서 기원하며 의미는 ‘발생하다, 생기다, 지나다’의 의미를 지닌다(BT). 이 어휘들은 코미타투스라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용사들이 이룩한 영웅적 업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의 변화 혹은 한 층 높아진 용사의 정체성을 알릴 때 사용된다. 형용사 weorðra는 ‘명예, 고양(高揚), 가치’의 뜻을 지닌 명사형 weorð의 비교급으로서 강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한층 고양된 용사의 가치 및 신분 상승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어휘로 간주된다.

또한 weorð는 ‘가격’(price), ‘가치’(worth), ‘보물’(treasure)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고귀한 업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용사의 영웅적 가치(정체성)나 고양된 신분이 군주의 찬사와 함께 주어지는 하사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weorð가 품고 있는 ‘가격’, ‘가치’, ‘보물’의 의미는 물질적인 가치를 뜻하는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추상적인 해석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영예, 영광, 명예’의 뜻으로 해석되는 weorðmynd “glory, honour”는 코미타투스 사회의 용사들이 가장 열망하는 목표이다. 이런 영웅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weorðmynd 역시 첫 번째 형태소에 weorð-를 품고 있는데 이는 우연으로 볼 없는 시인의 의도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weorðian과 weorðan에서 파생되는 어휘들을 반복 사용하여 영웅주의 사회의 행동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물 혹은 물질적 가치와 연관된 용사의 명예는 늙은 호로드가르 왕이 젊은 베오울프에게 자만에 빠지지 말고 관대함을 실천하라는 설교조의 연설에서도 핵심 주제로 부각된다.

나는 전투에 뛰어나지 않는, 미약한 용사들에게 보물, 고귀한 선물들을 자주 하사했노라.

Ful oft ic for læssan lean teohhode,
hordweorþunge hnahran rince,
sæmran ætsæcce. (951-53)

용사들에게 베풀었던 자신의 관대함을 회상하는 호로드가르 왕의 말은 더욱 고귀해진 용사의 정체성 혹은 고양된 신분은 보물하사로 이루어진다는 영웅주의 사회의 통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말해 호로드가르 왕은 보물과 연관된 용사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코미타투스의 유능한 지도자가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무릎에 칼을 놓다”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일환인 칼의 상징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웅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이러한 칼을 매체로 전개되는 구성은 『베오울프』 시의 핀(Finn)과 프레와루(Freawaru)의 에피소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칼을 매체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핀과 프레와루의 에피소드에서는 영웅주의의 특정한 행동철학인 복수에 대한 책무를 다루는 데서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II.iv. 복수에 대한 책무를 환기시키는 칼의 상징적 기능

복수에 대한 책무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도덕률로서 영웅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지울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영웅주의 도덕률 중 군신간의 신의와 충성, 구성원간의 동료애는 코미타투스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군주를 보호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는 것은 군주의 은혜를 입은 용사가 응당 취해야 할 책무로 받아들여진다. 소규모 부대의 특성을 지닌 코미타투스는 군주와 그를 따르는 정예 용사들로 구성되는데 많은 경우 혈연 중심의 공동체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혈연관계에 기인한 군주와 신하사이의 신의(信義)는 군주 베오울프에 대한 위그라프의 충성심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혈족 관계의 맹약을 저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Sibb æfre mæg

Wiht onwendan þam ðe wel þenceð. (2600-1)

이러한 군신간의 책무에 대한 중요성은 고대 게르만족의 특성을 관찰했던 타키투스(Tacitus)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군주가 죽은 후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평생의 불명예요 치욕이다. 군주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군주에게 돌리는 것은 가장 엄숙한 충성 맹약의 책무이다. (Mattingly 113)

타키투스가 간파한 게르만 족의 군신 간에 존재하는 책무에 대해 중요성은 『베오울프』에서 핵심주제로써 반복되어진다. 베오울프가 맞이한 최후의 전쟁에서 용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비겁하게 몸을 숨기는 동료 용사들을 꾸짖는 위그라프의 말은 그대로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대변한다.

치욕스럽게 사느니 죽는 것이 모든 용사들에게 더 나은 것이오.

Deað bið sella
eorla gehwylcum þonne edwitlif! (2890-91)

군신 간 혹은 구성원간의 충성심과 동료애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복수에 대한 책무는 칼이 지닌 상징적 기능과 함께 프레와루와 잉겔드 에피소드에서 구체화된다. 군주 히엘락 앞에서 자신의 모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베오울프는 자신의 정치적 해안을 드러내는 투시력을 발휘하여 프레와루의 미래를 예언하게 된다(Irving 210). 덴마크 왕 호로드가르는 적대관계에 있던 헤아도바드 왕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딸 프레와루를 적군 왕 잉겔드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정한다. 이는 여자를 매체로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략결혼인 셈인데 베오울프는 이러한 정략적 방편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예측한다. 이야기 도중 베오울프의 투시력에 의해 재현된 장면은 이러한 정략결혼이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덴마크 족과 헤아도바드 족이 향연장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헤아도바드의 한 노장은 덴마크의 한 젊은 용사가 칼을 차고 향연장을 거만하게 활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분개한 나머지 젊은 후배용사에게 두 종족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과 거만한 용사가 지닌 칼에 대한 과거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창에 전사한 모든 용사들을 기억하는 헤아도바드의 한 고령의 용사는 그 보검을 바라보며 주연석에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끓어오릅니다. 비통에 잠긴 그는 한 젊은 용사의 기백을 시험하며 그의 마음에 전쟁에 대한 충동을 부추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친우 용사여, 그대는 그대 부친께서 최후의 전투 때 투구를 쓰시고 전장으로 들고 갔던 저 귀중한 칼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 전투에서 덴마크인들이 그대 부친을 살해했으며 위더길드가 죽고 또한 아군 용사들이 쓰러진 후 맹렬한 덴마크인들이 학살장을 장악했다네. 지금 그 살인자들 중 (어떤 이의) 한 아들이 전쟁에서의 살상을 자랑하며, 바로 이곳 회관을 걸어 다니면서 무기, 장신구들을 과시하며 그대가 당연히 소유했어야 할 그 보물(칼)을 차고 있네.”

이와 같이 그가 신랄한 말로써 끊임없이 옛일을 상기시키며 충동하니 마침내 그 여인을 수행하던 신하는 자기 부친의 행위 때문에 겁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목숨을 잃고 영원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살해자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 도망치게 되고 그리하여 양측 간에 체결된 **용사들의 서약**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자 잉겔드의 마음에는 무서운 적개심이 솟구치며 슬픔이 끓어올라 그 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게 됩니다.

onginneð geomormod geongum cempan
 þurh hreðra gehygd, higes cunnian,
 wig-bealu weccan, ond þæt word acwyð:
 "Meaht ðu, min wine, mece gecnawan,
 þone þin fæder to gefeohte bæR
 under here-griman hindeman siðe,
 dyre iren, þær hyne Dene slogon,
 weoldon wæl-stowe, syððan Wiðergyld læg,
 æfter hæleþa hryre, hwate Scyldungas?
 Nu her þara banena byre nat-hwylces
 frætsum hremig on flet gæð,
 morðres gylpeð ond þone maðþum byreð,
 þone þe ðu mid rihte rædan sceoldest!"
 Manað swa ond myndgað mæla gehwylce
 sarum wordum, oð ðæt sæl cymeð,
 þæt se fæmnan þegn fore fæder dædum
 æfter billes bite blodfag swefeð,

ealdres scyldig; him se oðer þonan
 losað lifigende, con him land geare.
 Þonne bioð abrocene on ba healfe
 aðsweorð eorla syððan Ingelde
 weallað wælniðas, ond him wiflufan
 æfter cearwælmum colran weorðað. (2044-67; 강조는 필자)

헤아도바드의 노장은 후배 용사에게 아버지를 죽인 칼이 적군인 덴마크 용사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복수에 대한 책무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젊은 용사는 부친을 살해한 칼을 보고 복수심이 끓어올라 복수를 실행하게 되자 향연장은 이내 처절한 살육의 장(場)으로 돌변하게 된다. 적군에 죽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일은 코미타투스 구성원의 책무인데 이러한 책무를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덴마크 용사가 지닌 칼에 있다. 이 부분에서 덴마크 용사가 지닌 칼은 복수심을 자극하는 심리적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어서 복수에 대한 책무를 유발시키는 상징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칼의 상징적 기능은 일대일 혈연간의 복수에 대한 책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狹義)와 두 종족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광의(廣義)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후자인 광의의 의미는 2064행 ‘용사들의 맹세’(aðsweor[d]ð eorla)의 어원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에 달려 있다. ‘용사들의 맹약(맹세)’는 다름 아닌 두 적대국 사이에 체결된 맹세로서 프레와루와 잉겔드의 결혼을 통해 두 종족 사이에 더 이상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용사들의 맹세’로 해석되는 *aðsweorð*의 정확한 의미론적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되는 *aðsweorðd*(2064)는 *að-swyrð*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번째 형태소인 *-swyrð*는 ‘맹세하다’(swear)의 의미를 지닌 고대영어 *swerian*에서 파생된다.⁵ 그런데 이 ‘맹세하다’의 의미를 지닌 *swyrð*가 후기 고대 영어에서 ‘칼’의 뜻을 지닌 *swyrd*와 철자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의미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맹세하다’의 의미를 지닌 *swerian*을 어원으로 하는 *swyrð*는 ‘칼’을 의미하는 *swyrd*, *swurd*, *sweord*와 의미론적 상관이 없다는데

⁵ 고대영어 ‘맹세하다’(swerian)는 고딕어 ‘맹세하다’(swaran “swear”)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참조.

동의한다(Wrenn 174). *Aðsweorð* 의 두 번째 형태소인 *sweorð*가 ‘칼’의 뜻인 아닌 ‘맹세’의 뜻을 지닌다면 이는 첫 번째 형태소인 ‘맹세’의 뜻인 *að* “oath”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að*(맹세)*sweorð*(맹세)라는 다소 어색한 어휘조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의미상의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필사자의 오류를 전제로 철자의 변경을 시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자상의 변화는 *aðsweorð*의 끝 철자인 *-ð*를 *-d*로 전환하여 *aðsweor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원상의 의미는 ‘맹세+맹세’(*að*[맹세, oath]+*sweorð*[맹세, oath])에서 ‘맹세+칼’(*að*[맹세, oath]+*sweorð*[칼, sword])의미로 바뀌게 된다. 만약 철자상의 변화를 통하여 *aðsweorð*가 받아들여진다면 앞부분의 ‘맹세’와 뒷부분의 ‘칼’이 연합하여 총체적 의미는 용사들이 ‘칼을 두고 한 맹세’(oath on sword)라는 훨씬 유연한 의미기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철자상의 수정을 의도했을 것이다.⁶ 하지만 *-ð*와 *-d*를 둘러싼 철자상의 논란은 일차적으로 의미의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는 수서본에 기입된 철자를 분석하는 서지학적 고찰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줄리우스 쥬피짜(Julius Zupitza)의 필사본을 살펴보면 *aðsweorð*의 마지막 철자인 *-ð*는 같은 수서본 상에 기입된 *-ð*의 철자 형태와 커다란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95). 고대영어 철자인 *-ð*는 다른 고대영어철자인 *-d*와 유사한 형태로 기입되는데 이 두 철자는 상단부 사선 획의 첨가 여부로 구별된다. 쥬피타르가의 필사본에 기입된 *að sweorð*의 마지막 철자인 *ð*를 유심히 살펴보면 상단부 사선 획이 다른 단어에 들어있는 *ð*의 상단부 사선과 달리 선명하지 않고 마치 필사자가 사선 획을 지우려다 남겨진 흔적처럼 매우 희미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필사자가 실수로 상단부 사선 획을 첨가했다면 필사자는 원래 *aðsweorð*(맹세, 맹세)가 아닌 *aðsweorð*(칼을 두고 한 맹세)를 의도했을 것이며 잘못 기입한 철자를 바로 잡기 위해 사선 획을 지우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자상의 논란은 가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필사자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만약 필사자가 ‘칼을 두고 한 맹세’(*aðsweorð*)를 의도했다면 이는 영웅주의 관습을 고려했을 때 더욱 타당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덴마크와 헤아도바드 죽은 그들 사이의 적대 감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략결혼을 고려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과거의 적대감정을

⁶ 웬의 경우 ‘맹세+맹세’의 뜻을 받아들여 *aðsweorð*를 택하며 클레이버는 *ð*를 *d*로 수정하여 ‘맹세+칼’의 뜻을 지닌 *aðsweorð*를 받아들인다.

말끔히 잊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협약의 징표로써 칼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 경우 칼이 지닌 상징성은 앞서 논의한 복수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적 촉매제의 역할과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 두 경우에 있어 칼은 공통적으로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배경에 깔고 있으며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칼이 복수심을 자극하는 심리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복수에 대한 책무라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구현하는 기능을 지니며, 후자의 경우에는 용사들 혹은 두 종족 간에 맺어진 맹세에 대한 신의—용사들이 내뱉은 말은 결코 반복할 수 없으며 후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의 징표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배경에 깔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칼의 상징적 기능은 쾰 에피소드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그(헹게스트)는 항해보다는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으니 그 심중에 자기의 칼로써 주트 용사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악의에 찬 접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했노라. 이러한 연유로 헹게스트는 훈라프가 전장의 빛인 그 최상의 검을 자신의 무릎에 놓았을 때 그는 그 **절대적인 책무**를 거절 할 수 없었노라. 그 검은 주트인들에게 잘 알려졌었노라.

he to gyrnwraece
 swiðor þohte þonne to sælade,
 gif he torngemot þurhteon mihte,
 þæt he Eotena bear irne gemunde.
 Swa he ne forwyrnde woroldræðenne,
 þonne him Hunlafing hildeleoman,
 billa selest on bearm dyde;
 þæs wæron mid Eotenum ecge cuðe. (1138-45; 강조는 필자)

호로드가르의 궁중시인은 쾰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한다. 데인족의 왕인 호크의 딸 힐데브르흐는 프리지안 족의 왕인 쾰과 결혼하게 된다. 하프데인 족과 프리지안 족 사이는 이전 까지 적군 사이였다. 힐데부르흐의 오빠인 호네프와 일군의 용사들은 힐데브르흐를 방문하다. 한 밤중 두 진영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게 되며 호네프와 힐데브르흐의 아들이 죽게 된다. 격렬한 전투의 결과로 쾰 역시 부하들을 잃게 된다. 겨울 날씨 때문에 두 진영은 불안정한 휴전을 체결하며 헹게스트가

죽은 흐네프를 대신하여 하프테인인들의 수장을 맡게 된다. 이러한 인위적인 상황에서 쾨는 보물 하사자(군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양 진영은 복수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서로 공격을 하지 않기로 굳게 서약한다. 하지만 헹게스트는 복수를 염원하며 봄이 되자 증원군의 도움으로 쾨와 그의 부하들을 사살하게 된다. 힐데브르흐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흐네프의 부하였던 훈라핑(혹은 훈라프의 아들)은 ‘그 최상의 검’을 헹게스트의 무릎에 놓으며 복수의 필요성을 상기 시킨다. 추정컨대 헹게스트가 덴마크로 돌아 왔을 때 그는 이전에 있었던 덴마크와 프리지안 사이의 전투에 참여했던 훈라핑이라는 용사를 직면하게 된다. 훈라핑은 헹게스트가 적군에 죽은 군주 흐네프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 온 것을 발견하고 복수를 실행하라는 징표로써 그의 무릎에 칼을 놓는다. 훈라핑의 이러한 행위는 헹게스트를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인다는 의식으로도 간주되며 이는 코미타투스이 일원이 구성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준엄한 행동철학인 복수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구성원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본문 중 인용된 ‘절대적인 책무’(*woroldræden*)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에 입각한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하면 쉽게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Woroldræden* 는 ‘죽음, 숙명, 응징, 복수, 위무, 책무, 우주론적 책무, 성스러운 맹세’(BT) 등의 의미를 지닌다. 코미타투스의 구성원들이 결코 비껴갈 수 없는 행동지침이며 이는 집단의 안위와 존속을 기약하는 성스러운 책무이기 때문에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군주와 동료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III. 결론

영웅시의 경우 시인은 완벽한 영웅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인 장치를 동원한다. 『베오울프』 시인은 시의 초반부에서부터 쉴드 세빙(Scyld Scefing)과 흐로드가르(Hrothgar)의 이름에 포함된 무기의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십분 활용하여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덴마크 왕족들의 영예로운 업적과 영웅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무기를 장치로 하는 시인의 예술적 기교와 의도는 영웅주의 에토스와 결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발전

하게 된다. 시인은 주요한 문학적 장치의 일환으로 칼을 자주 사용하여 용사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영웅주의 사회에서 용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회적인 신분은 그의 업적을 인정한 군주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곧 바로 용사의 새로운 정체성—제 3자에 의해 자신의 업적이 인정을 받았고 그리하여 고귀한 명예를 획득했다는—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신분 상승 혹은 새로운 정체성은 많은 경우 “(용사)의 무릎에 칼을 놓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용사의 무릎에 칼을 놓다”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써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시각적인 의식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이는 영웅적 업적을 이룬 용사의 무용(武勇)을 확인시키는 의미를 지니거나 용사의 새로운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칼을 용사의 무릎에 놓다’의 또 다른 해석은, 이 경우 상징적인 해석의 범주에 속하는데, 용사의 기개(氣概)를 일깨워 전투에 임하라는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의식이나 영웅주의 사회의 불문율인 복수에 대한 책무를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군신간 혹은 구성원간의 충성심과 동료애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복수에 대한 책무는 칼이 지닌 상징적 기능과 함께 프레와루와 쾨 에페소드에서 구체화된다.

두 경우에 있어 칼은 공통적으로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배경에 깔고 있으며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칼이 복수심을 자극하는 심리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복수에 대한 책무라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구현하는 기능을 지니며, 후자의 경우에는 용사들 혹은 두 종족간에 맺어진 맹세에 대한 신의—용사들이 내 뱉은 말은 결코 번복할 수 없으며 후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의 징표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칼은 상징적인 의식의 매체 혹은 촉매제의 역할을 지니게 되어 명예, 영웅의 정체성 그리고 복수에 대한 책무라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의 기저(基底)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제어 | 칼(무기), 명예, 복수에 대한 책무, 상징적 의식, 영웅주의

인용문헌

-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Ed. Frederick Klaeber. 3rd ed. Boston: Heath, 1950.
- Beowulf and the Finnesburg Fragment*. Trans. J. R. Clark Hall. Prefatory remarks by J. J. R. Tolkien. London: George Allen, 1963.
- Bosworth, Joseph, and T. Northcote Toller, eds.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Brodeur, Arthur G. *The Art of Beowulf*. Berkely and London: U of California P, 1971.
- Eliason, Norman E. "Beowulf's Inglorious Youth." *Speculum* 76 (1979): 101-108.
- Farrell, R. T. "Beowulf, Swedes and Geats." *Saga-Book* 18 (1972): 225-86.
- Hallander, Lars-G. "Old English Dryht and Its Cognates." *Studia Neophilologica* 45 (1973): 20-31.
- Irving, Edward B., Jr. *Rereading Beowulf*.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89.
- Kendall, Calvin B. *The Metrical Grammar of Beowulf*. Cambridge Studies in Anglo-Saxon England 5.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Lee, Alvin A. *The Guest Hall of Eden*. New Haven: Yale UP, 1972.
- Lehmann, Winfred P., ed.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E. J. Brill, 1986.
- Mattingly, H., ed. Tacitus: *The Agricola and the Germania*. Trans. S. A. Handford. Rev. ed. Harmondsworth: Penguin, 1970.
- Morgan, General. "The Treachery of Hrothulf." *English Studies* 53 (1972): 23-39.
- Parks, Ward. *Verbal Due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English Traditions*. Princeton: Princeton UP, 1990.
- Pepperdene, M. W. "Beowulf and the Coast-Guard." *English Studies* 47 (1966): 409-19
- Robinson, Fred C. *Beowulf and the Appositive Style*.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85.
-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72.
- Smithers, G. V. "Destiny and the Heroic Warrior in Beowulf." *Philological Essays: Studies in Old and Midd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d. James L. Rosier. Hague: Mouton, 1970. 75-89.
- Whitlock, Dorothy. *Wills*. Oxford: Oxford UP, 1957.
- Wrenn, C. L. *Beowulf*. London: Harrap, 1973.

Zupitza, Julius., ed. *Beowulf*. 2nd ed. with an introductory note by Norman Davis. Early English Text Society. London: Oxford UP, 1959.

ABSTRACT

Implication of Sword (Weapon) in Heroic Poetry

Dongill Lee

One of the most common features in the heroic poetry is that the poet endeavors to conjure up the ideal heroic image through various literary devices including the subtle fusion of the names of weapons, mainly the sword, which is associated with heroic ideals. The poem *Beowulf* is no exception to this case. The poet of *Beowulf*, who is keenly aware of the superficial and symbolic meanings of sword (weapon) in heroic society, seems to endeavor to convey its significance through subtle combinations of words. His intention is well prove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oem.

In *Beowulf*, weapons and swords are frequently used as a major means of literary device for establishing the heroic identity of a warrior which is determined by the sense of "worthiness."

This enhancement of the warrior's worthiness by reference to the sword is more clearly exemplified when a warrior is promoted through a ritual ceremony in which the sword is involved. And a warrior's new identity is often established when the lord confers upon him a new social position indicating promotion in social status. And this ritual ceremony is consummated with the symbolic gesture of "laying a sword on one's lap." "Laying a sword on one's lap" contains two meaning, one is the visible sign confirming the warrior's remarkable achievement or promotion in social rank, and the other is to awaken a martial spirit to take action for either fighting or revenge.

Key Words | sword (weapon), glory, obligation of revenge, symbolic ritual, heroism